

draw portrait

아티스트는 초상화를 그린다. 적어도 이 창창한 스타 작가들은 모두 초상화를 그렸다. 당신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는 그림 속 얼굴이 하고 싶은 말.

에디터 : 이경아 이사스턴트 : 최은혜 (모든 이미지의 저작권은 해당 작가와 소속 갤러리에 있습니다.)



MONA KUHN 모나 쿤의 흑백 누드 작품은 메끄럽고 우아한 조각 같다. 포커스 기능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포커스 아웃된 피사체를 오히려 부각시키고, 그림자를 솔직하게 드러낸 그의 흑백 사진이다. 다분히 시진적이라면, 부드러운 빛과 색깔로 따뜻하고 나른하게 찍힌 컬러 사진 속의 누드는 매우 회화적이다. 어떤 방식이든 그녀의 사진 속 피사체들은 빛은 체로 자연스럽게 편안해 충분히 관능적이면서도 지상낙원에서 순수한 경지조차 엿보인다. 모나 쿤의 누드 작품은 셀프 누드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녀의 작품을 본 친구들이 모델이 되길 자청했고, 그렇게 그녀와 함께 작업하는 사람들은 50여 명으로 늘어났다. 중고로 구입한 35년 묵은 핫셀 블라드와 몇 개의 렌즈, 그리고 최대한의 일광이 그녀의 작업에 필요한 모든 것이다. 정사각 포맷의 임격함 안에 담긴 모델들은 그러나 어떤 억제도 없이 자유롭게 진신하다.

1969년 독일에서 태어나 브라질에서 유년기를 보냈고, 현재 그녀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화업을 마쳤다. 1996년부터 1997년까지 샌프란시스코 아트 인스티튜트에서 공부했고, 2004년 게티리서치 인스티튜트를 졸업한 그녀는 2004년 독일 괴팅겐의 슈타이틀 출판사에서 발간한 사진집을 통해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리고 최근 파리 포토 쇼에서 극찬을 받은 그녀의 사진은 성별과 연봉, 나이와 외모를 넘어선 그 무언가를 포착해낸다.